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2년 5월 31일(화) 총 2매	
담당부서 시립박물관	담 당 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최병훈 ☎440-6749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박물관에서 만나는 화교들의 항일운동 이야기

-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 〈화교들의 항일운동 – 1943년 인천, 일동회〉 개최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화교들의 항일운동-1943년 인천, 일동회〉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일본 경찰의 심문 보고서와 현장검증 사진을 토대로 인천 화교들의 항일운동과 1940년대 초반 인천의 모습을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일동회’에서는 1940년대 인천 화교들의 항일단체였던 일동회를 소개하고, 그들이 일제를 상대로 전개했던 항일운동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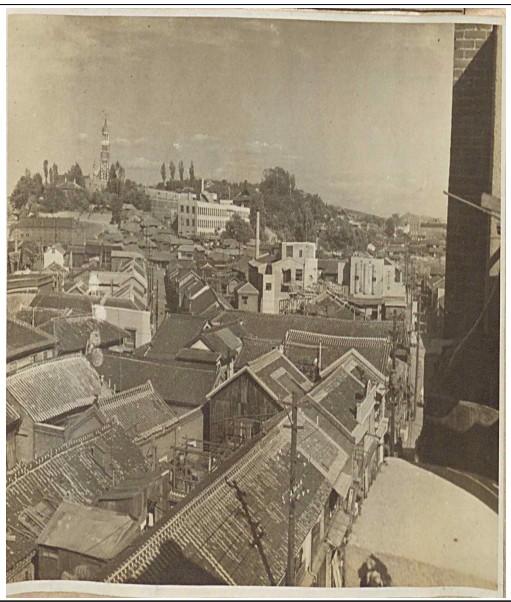
이어 2부 ‘1943년, 인천’에서는 일동회가 붙잡힌 후 그들의 현장검증을 기록한 문서에 담긴 인천의 사진을 전시한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들의 선한 이웃

화교들 또한 일제에 저항하였음을 조명하고, 1940년대 초반 전쟁의 영향으로 희귀해진 인천의 사진을 많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전시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천시청역 지하 3층 1, 9번 출구 앞 열린박물관에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인천지하철이 운행되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문의전화: ☎032-440-6749)

<붙임> 관련 사진

	열린박물관 전시 <화교들의 항일운동> 포스터
	금파에서 바라본 신포동 일대